내년 사립 중등학교교사 채용 계획 공고

전북도교육청, 9개 사립학교서 17명 채용 예정… 공립 위탁형으로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2학년도 전라북도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29일 도교육청이 공고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참여하는 곳은 5개 학교법인에 9개 학교다. 총 선발예정인원은 17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동국대사범대학부속 금산중에서 일반사회와 체육 1명씩 채용한다.

경일학원은 군산제일중에서 도덕윤리 1명·수학 1명, 군산제일고는 일반사회 1명·물리 1명·영어 1명을 선발한다.

또 남성학원에서는 이리남성여중 수학 2명, 남성고 국어 1명·일반사회 1명, 이리남성여고 영어 1명을 뽑는다.

학산학원 자유중은 국어 1명, 완산학원 완산중은 수학 1명·영어 1명, 완산여고는 국어 1명·수학 1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립법인 채용은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및 제1차 시험과 병행 실시하는 공립 위탁형이다.

응시원서는 10월 25일~29일까지 5일간 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에서 접수하며, 제1차 시험은 11월 27일 실시된다.

특히 사립과 공립이 1차 시험을 병행하면서 수험생들은 △공립만 지원 △공립(1순위)+사립(2순위) 지원 △사립만 지원(1개 법인 지원) 등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사립 동시지원 대상 과목은 국어, 수학, 물리, 일반사회, 도덕윤리, 체육, 영어 등 7과목이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31일 오전 10시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2차 시험부터는 학교법인별로 전형이 진행된다.

한편 사립학교의 교사 선발예정 과목, 응시자격, 배점, 세부 일정, 합격자 결정 등은 임용예정 학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잠재력 큰 전북, 규제혁신으로 신산업 청년창업 땅으로"

박용만 회장, 전북대서 특강

박용만 두산경영연구원㈜ 회장은 지난 28일 전북대 행정대학원에서 '제조업이 없고, 하이테크도 없고, 기업수가 많지 않은 전북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전북은 레거시(Legacy)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만, 예술?음식?관광 등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바탕과 저변이 넓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북의 잠재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용만 두산경영연구원㈜ 회장은 지난 28일 전북대 행정대학원에서 '제조업이 없고, 하이테크도 없고, 기업수가 많지 않은 전북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레거시가 적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규제의 장벽을 과감하게 완화해 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청춘창업'에 대한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전라북도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취업문제 해결 구조와 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해야 하다"면서 "이제는 한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만큼 혁신과 규제개혁의 마인드만 앞세운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이 할 일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가로막힌 현실 속의 규제를 풀고,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승차공유서비스인 '우버(Uber)'의 시작 사례를 통해 발상의 전환이 곧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혁신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혁신적으로 움직여야 함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신산업·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요 없는 룰을 고집하면서 가로막힌 상태"라고 진단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법과 제도의 틀을 전면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은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법과 제도와 같은 낡은 레짐(Regime)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우리 공직사회도 '규제를 풀면 수혜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행정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초빙교수는 "대기업 경영자이면서도 어디에서든 과감하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 박용만 회장"이라면서 "한국이 이제는 돈이 없어서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만큼 전북이 규제와 레짐이 최소화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드론 활용 특화인재 양성

전주비전대 LINC+사업단, 드론 활용교육 실시

전주비전대학교 LINC+사업단은 27일~30일까지 4일 간 특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교육프로그램은 다가오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표하는 무인드론 기초 및 응용기술 등을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체 취업 및 자격증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주시에서 드론축구와 관련 소재 및 서비스 등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ICT융합 기술 발전에 지원하고 있고, 2018년부터 전주비전대학교에서도 지적정보 관련 산업, 드론 축구 등 드론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주비전대학교는 2020년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의회에 참여해 드론 산업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교육은 드론이론 및 응용분야, 드론 수리, 드론 조종, 드론 축구 교육 등을 직접 실습한다.

최승훈 단장은 "이번 특화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드론관련 산업에 진출해 물류, 방송, 공간정보,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 LINC+사업단은 사회맞춤형 교육을 통한 지역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지역산업과의 동반성장에 힘쓰며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체의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올해의 트렌드, 4차 산업혁명 with 코로나

전주비전대, 한민구 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초청 특강 열어

전주비전대학교(총장직무대행 문용규)는 29일 비전관 대강당에서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Trend 2021: 4차산업혁명 with 코로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강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기계과, 방송영상디자인과 등 재학생 40여 명만 참석했다.

이날 특강에서 한민구 원장은 '2016년 알파고 사건, 2019년 무인자동차, 배달 서비스 시작' 등을 화두로 AI(인공지능)는 광범위한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 능력을 요구하며, 새로운 직업 진로를 창출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특히,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역동적인 경력을 개발하는 기술로 '학습기술, 기본에 충실, 사회/커뮤니케이션 기술, 긍정적인 마인드, 사고와 행동의 세계화 등의 실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민구 박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에서 학사 학위, 미시간대학교에서 석사 학위, 존스 홉킨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창의적 설계 작품 집대성한 아카이브 구축

학생들의 캡스톤디자인 1300여 작품 온라인 탑재… 창의성 공유

전북대는 학생들의 창의적 공학설계 작품을 집대성한 '캡스톤디자인 아카이브'(https://lincplus.jbnu.ac.kr/history)를 온라인에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캡스톤디자인 아카이브에는 전북대 학생들이 LINC+사업 1차년도인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만들어낸 1,300선의 작품이 탑재됐다.

캡스톤디자인은 학생들의 전공지식과 창의력을 결합해 실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형 교과목으로, 전북대는 LINC+사업단을 필두로 작품 아이디어 기획, 실험실습 비용 지원, 우수 작품 시상, 전시회 개최 등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우수 작품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캡스톤디자인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대면 수업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캡스톤디자인 아카이브 구축 역시 코로나19 대응의 연장선에서 학생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이를 널리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고영호 단장은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창의성과 뛰어난 아이디어를 LINC+ 사업을 통해 한 자리에서 집대성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캡스톤디자인 작품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학생들과 지도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맞춤 채용 연계 'JJ 기업 협의회' 개최

도내 기업 친화적 우수 인재 양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대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홍성덕)는 29일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연계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지역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기업협의회를 구축, 첫 'JJ 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하림, ㈜오디텍, ㈜정석케미칼, ㈜리퓨터 등 도내 기업 및 유관 기관 10곳이 참여했다. 기업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채용 연계형 우수 사례 및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활용한 일경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청년 고용 활성화와 기업 연계형 경진대회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센터는 이번 협의회를 통한 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실질적 채용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도내 청년들을 위한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과 일경험 및 취업 매칭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성덕 센터장은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기업 친화적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사회 발전 견인 인재양성 '한마음'

우석대-새마을운동중앙회 협약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염홍철)와 손을 잡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인재 양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29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우석대학교에서 남천현 총장과 백유진 기획처장, 김성희 교무처장, 이승미 학생취업처장, 송교원 사무처장이,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염홍철 회장, 구자강 전라북도 새마을회장, 구생회 완주군 새마을회장, 이연숙 새마을운동중앙회 조직사업국장, 표순복 전라북도 새마을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산업과 지역 혁신성장 연계 공동사업 개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대학 내 대학생 새마을운동 동아리 운영 및 관리 지원 △국내외 새마을운동 봉사활동 관련 프로그램 대학생 참여 △교육·학술 관련 연구 및 행사 지원 참여 등이다.

남천현 총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명운동과 평화운동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력해 우리 학생들이 지역과 국가를 혁신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했다.

염홍철 회장은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새마을운동은 시대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를 찾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새마을운동이 세대를 뛰어넘어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석대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교육청, 2022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선정

온라인투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합산… 3개 분야 41개 사업 확정

'2022년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결과 3개 분야에 41개 사업이 확정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예비심사를 거친 74개 사업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3개 분야 4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7일~16일까지 진행된 온라인투표에는 학생 6,663명, 학부모 6,741명, 교직원 및 주민 1만119명 등 총 2만3,523명이 참여했다.

학생 분야에서는 용산초 '학교 숲에서 마음 씨앗 틔우기' 등 6개 사업이 선정됐다.

또 학부모 분야에서는 흥덕초 '공동체가 뭐예요?' 등 12개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및 주민 분야에서는 군산초산북중 '한 번 걸어봐~ "교육공동체와 동네 한바퀴"' 등 23개 사업이 뽑혔다.

한편 최종 선정된 4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당 1,5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제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 2월 컨설팅과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서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